

‘백골단’ 등장...“민주화 투사들 ‘피흘림’ 짓밟힌 순간”

반공청년단,尹 체포저지 국회 회견 군사정권 시절 ‘폭력 공권력’의 상징 시민들 “80년대 엄혹한 시절 떠올라” “민주주의 퇴행”...의원 제명 등 촉구



1987년 6월항쟁 당시 전남대 정문에서 전남대학생들이 호헌철폐 등을 외치며 연좌시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투경찰과 사복경찰(일명 백골단·검은 원안)들이 시위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다. 김양배 기자

군사정권 시절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민주화 요구 시위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 이른바 ‘백골단’이 국회에 등장해 지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이 소환한 ‘엄혹한 시절의 악몽’에 지역민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정치권은 물의를 일으킨 여당과 해당 의원을 규탄하며 제명·사과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선언한 극우 청년단체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이날 백골단을 의미하는 ‘하얀 헬멧’을 쓴 채 회견장에 나와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으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백골단을 운영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자경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민주화 시위

대를 진압·체포했던 사복경찰 부대를 일컫는 별칭이다. 이들은 하얀 헬멧을 쓴 채 곤봉·쇠파이프 등으로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다. 시위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들은 군부독재 시절 ‘폭력 공권력’을 상징했다.

비상계엄의 후유증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타난 백골단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너나없이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1991년 민주화 시위 도중 백골단에 맞아 숨진 강경대 열사(당시 19세·명지대)의 유족도 성명을 발표하고 “김 의원의 정치강대 동원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과 국민의힘은 ‘백골단의 의미를 몰랐다’며 사과했지만, 정치학 교수이자 80년대 학번으로 당시 대를 경험한 김 의원이 그 의미를 몰랐을 리 없다는 반박이 뒤따랐다.

1990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역임한 송갑석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극우단체를 직접 국회로 끌어들여 회견을 진행한 것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광주항쟁의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고 전두환·노태우 군부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민주화투사들의 ‘피흘림’이 짓밟힌 순간”이라고 말했다.

‘80년 5월’ 엄혹한 시절을 경험했던 광주·전남 지역민들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정기호강진의료원장은 “광주항쟁당시 조선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다. 진압대에 의해 다친 시위대의 참상은 의료인으로서 참기 힘들 정도였다”며 “군중 사이에 숨어 있던 백골단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이들은 최루탄이 던져지면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했다.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절대 백골단을 세상에 다시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광주 토박이라는 강대산(63)씨는 “‘무장 계엄군’이라는 말을 들은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그런데 여당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행태를 했다”며 “내란사태로 정치·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자극하는 이유가 뭐냐. 국민의힘 당 관리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중앙·지역 정치권은 ‘민주주의 퇴행’을 이끈 김 의원의 제명과 함께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균택(광산갑) 의원은 “노동·인권운동 탄압의 상징인 백골단이 국회에 설 수

있던 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여당의 현 모습 덕분”이라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다. 만약 백골단이 실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죄의 교사죄로 김 의원을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에 대한) 제명도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작심발언했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김 의원이 ‘2030세대 이야기를 전하고자 회견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는 절대 청년들의 목소리가 아니다. (탄핵봉 등) 그간 정국 상황에서 여실이 보여주지 않았나”라며 “이번 사태 이후 백골단 소대장을 했던 지인이 정말 괴로워 한다. 80년 5월의 죄송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어떻게 이게 민의인가. 국민의힘은 이성을 되찾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 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의원이 백골단 회견을 주도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본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백골단에 숨진 강경대 열사 광주와 ‘각별한 인연’

1991년 쇠파이프에 맞고 숨져 연고 없는 광주 망월묘지에 안장 유족 “5·18정신 깃든 곳에 묻히길” 부친, 식당 운영하며 민주화 지원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인 강민조(왼쪽)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이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보호 위한 백골단 부활 규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

특히 광주는 백골단의 폭력에 숨진 (故) 강경대 열사가 안장돼 있었던 데다, 그의 부모가 식당을 운영하며 민주화 운동을

뒷받침하는 등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1991년 4월26일, 학원 자주화 투쟁에 참여했던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1학년 강

경대 열사는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당시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4월29일,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학년 박승희 열사는 강경대 열사의 사망을 규탄하는 집회 도중 분신하며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쳤다. 박 열사의 분신 이후 60여일 동안 13명의 열사가 분신하거나 의문사로 목숨을 잃었다. 이 시기는 ‘분신정국’으로 불리며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뜨겁게 타올랐던 시기였다.

같은 해 5월18일 경찰의 갖은 방해 끝에 영결식과 노제를 치른 강경대 열사의 운구 행렬은 광주로 향했다.

연고가 없는 강경대 열사의 유해가 광주에 안장된 이유는 강 열사의 유족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깃든 광주에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5월20일 강경대 열사는 광주 망월묘지공원에 안장됐다. 이후 이전 민주화묘역으로 이장됐다.

이후 강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 씨 부부는 아들의 희생을 기리며 광주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와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 강씨 부부가 1993년 광주 북구 우산동에 개업한 경민회관은 강경대 열사와 강민조 씨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은 식당으로, 민주화 운동가들의 모임 장소와 지역 사회 봉사의 거점으로 활용됐다.

강 열사의 유족은 여전히 백골단의 부활을 자처하는 단체의 활동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적극 활동에 나서고 있다. 강민조씨는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골단의 부활을 규탄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아들의 희생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정성아 기자

Rotary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봉사실천에 앞장서는 사람들

국제로타리는 1905년에 ‘초아의 봉사’를 모토로 창설된 최초의 봉사단체입니다. 전 세계 로타리 회원들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실천하고 문해력 증진, 질병 퇴치, 기아 및 빈곤 감소, 안전한 식수 제공, 모자보건,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등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세계이해와 평화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지속력 있는 변화를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 전남서) 2024-25년도 총재 진하 백현옥

국제로타리 3710지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서부권 9개 시.군(화순, 나주, 담양, 장성, 영광, 함평, 무안, 목포, 신안)에 있는 90개 클럽을 관리하는 지구로 3,600명의 로타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Rotary 3710지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48(농성동) TEL 062-223-3710 FAX 062-223-3738 E-mail ri3710@hanmail.net